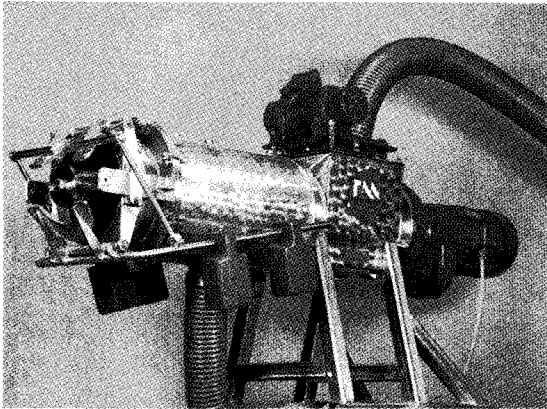


# FAN 고액분리기



고액 분리는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효과적인 기술이 소개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소개된 고액분리기는 가격이나 관리유지 또는 내구성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을 뿐 아니라 처리용량도 충분치 못하고 분리된 후의 고형분은 바로 발효나 소각을 시킬 수 없을 만큼 수분 함량이 높다.

여기에 소개되는 고액분리기는 25년 동안 이 분야에 만 매달려 연구개발해 온 독일 FAN사에서 최신기술로 완성해낸 제품으로 지난 2년여에 걸쳐 국내 많은 축산 농가에 소개되어 분뇨처리에 관한한 탁월한 효용성이 입증되었다. 이러한 경험과 기술을 더 더욱 발전시켜 어느 폐기물이나 적용될 수 있도록 완벽한 제품을 생산 공급하게 되었다. 선진국에서는 제지, 식품, 도축장의 폐기물 처리에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우리시장에도 자신있게 선보이게 되었다.

수분이 함유된 폐기물은 우선 고형분이 제거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모두가 공감하면서도 아직 만족할 만한 장비를 찾지 못하고 있던 차에 시간당 10m<sup>3</sup> 이상을(폐기물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음)처리해 주는 최첨단 소재를 사용해서 내구성이 뛰어나며 구조가 간단하여 관리 유지가 용이하고 극히 적은 전력비만으로 운용할

수 있는 뛰어난 제품을 소개하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하는 바이다.

가장 관심사인 수분함량은 발효를 요하는 경우 60% 정도로 분리가 가능하며 소각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50% 이하로 낮추어 최소한의 소각처리 시설로 가능하도록 하였다.

85%~99% 까지의 수분을 가지고 있는 폐기물을 수증펌프나 스크류 펌프로 분리기에 투입시켜 10~60rpm의 기어모터로 스크류를 회전시키면서 배출구로 밀어낸다.

이 과정에서 원통형의 특수 스크린(규격 0.25mm~1.5mm)을 통과하게 되며 배출구에서 가해지는 압력으로 수분이 제거된다. 짜는 압력은 유압에 의해서 자동 조절되며 스크류는 마모를 방지하기 위해 특수 코팅처리가 되어 있다. 24시간 가동시 18개월 동안을 견딜수 있으며 마모가 된 후에는 코팅만 다시 해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전력은 수증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10Kw 정도에 불과하며 조작이 간편하기 때문에 별도의 인력이 필요치 않다.

스크린에서 걸리지 않는 미세한 고형분을 별도로 공급하고 있는 Hydro cyclone과 가압부상조에서 상당부분을 다시 제거시켜 최종수를 처리하는데 용이하도록 하였다.

적용될 수 있는 분야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제지 Sludge
- 도축장 폐기물(가축의 내장, 그의 내용물 등 일체)
- 대형 음식점의 음식 찌꺼기
- 식품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폐기물
- 주정 찌꺼기
- 커피 Sludge
- 수산물 폐기물
- 기타

문의전화 (02)557-2011 FAX (02)556-0157